

“우리네 인생 표현한 사진, 생각도 못한 수상 기뻐요”

제40회 무등미술대전 최고상 사진부문 정순애 씨

문화체육부 장관상 ‘인생길’ 전국 각지 1815점 출품 성황 “동시대 새로운 조형성 발굴”



정순애 작가는 “2년 전 양동시장 인근 수변 길에서 포착한 한 장면이다. 곡선의 길 위에 무거운 좌판을 지고 가는 할머니와 뒤이어 걸

어오는 청춘남녀의 모습을 통해 ‘가는 세월, 오는 세월’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번 공모전에 어떤 작품을 출품할까, 고민하다가 예술적으로 화려한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네 인생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해 출품했다.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짧은 글귀에 함께 작품을 심는 사진집 출판과 ‘길’을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인생길뿐만 아니라, 꽃길, 험난

“특선만 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최고상인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쁩니다.” (사)광주전남발달협의회(회장 김종채)는 제40회 무등미술대전 심사 결과, 사진 부문 출품작인 정순애(55·사진)의 ‘인생길’이 최고상 격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인생길’은 청춘과 노년으로 가는 인생사를 렌즈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한길 등 다양한 주제로 ‘길’을 포착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광주사진협회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미술대전 사진부문 추천작가로 등단한 적 있으며 2019년 광주 북구 자미갤러리, 2021년 동구 진한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진행한 바 있다. 시시집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를 통해 ‘비’를 주된 시상으로 한 시와 사진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제40회 무등미술대전에 1815점이 출품됐다. 역대 두 번째 많은 출품수다. 심사위원장은 김종경(조선대학교 교수·한국화)씨가 맡았다. 입상자 수상은 문체부장관상 1점, 대상 5점, 우수상 27점, 특선 361점, 입선 673점 등 총 1067점이다. 수채화, 판화, 조각부문은 대상작품을 선정하지 않았다. 대상으로는 △한국화 부문 이설 작 ‘중쟁’ △문인화 부문 이

은정 작 목죽 △서양화 부문 문화작 Still Life2 △공예(섬유) 부문 최영 작 환희 △서예(멋글씨) 부문 손미선 작 봄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김종경 심사위원장은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현대적인 경향을 확연히 보여줌으로써 국제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독특한 기량이 눈에 띄었다”며 “수묵, 산수화, 채색화, 비구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고 작품 수준 또한 수작이 많았다. 동시대 조형성을 표현한 작품들이 수상했고 현대 회화가 요구하는 구성, 색채 등 표현방법에 탁월한 감각과 뛰어난 재능을 보여줌으로써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장관상을 비롯해 대상 수상자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장관 수상작을 비롯한 공모 당선작을 선보이는 전시는 오는 18~2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제40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최고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된 정순애 작 인생길. (사)광주전남발달협의회 제공



‘자유 갈망한 현실 참여 시인 김수영’ 삶과 시

광주시립극단이 창작극 ‘거대한 뿌리’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시립극단 ‘거대한 뿌리’ 25~27일 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극단 제22회 정기공연 ‘거대한 뿌리’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세 차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위 작품은 극단 골목길 예술감독인 박근형(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희곡으로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살아내며 자유를 갈망했고 불의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선 김수영 시인의 삶과 시를 그려냈다. 작품은 임종을 앞둔 김수영 시인이 있는 적십자병원에서 시작해 그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 후 미군정기, 그리고 6·25전쟁을 겪으며 비참하게 살았던 젊은 날의 김수영과 4·19혁명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를 갈망한 현실 참여시인’ 김수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시공간을 오가는 속도감 있는 장면 전환과 다양한 음악, 영상, 자막 등을 활용하여 극적인 재미를 더했다. 작품에서는 시인 김수영 외에 다양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목마와 숙녀’로 잘 알려진 시인 박인환, 흑인 시를 쓴 배인철 시인, 명동백작 이봉구 작가 등이 등장해 그 시절 작가들의 낭만과 삶을 엿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작품의 연출을 맡은 극단 파수꾼 대표 이은준은 제55회 동아연극상 신인 연출상, 2016년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서울연극제 우수상을 받은 연극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연출자 중 하나이다. 극단 골목길에서 활동하다 2014년 극단 파수꾼을 창단했고 대표작으로는 △7분 △괴벨스 극장 △속살 등이 있다. 여기에 제59회 동아연극상 무대 예술상을 받은 조명 디자이너 신동선이 참여한다. 시인 김수영 역은 노희철, 김수영의 아내 김현경 역은 채운정 배우가 맡아 열연한다. 그 외 고난영, 이정진, 이영한 등 우리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이 개성 있는 연기를 펼친다. 이은준 연출은 “은몸으로 시대를 느끼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쳤던 김수영 시인의 일생을 빌어서 우리의 역사와 뿌리, 민중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작품으로 관객분들의 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수 있게 배우들과 스태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대한 뿌리’는 13세(중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러닝타임은 90분이고, 전석 만원 지정석으로 운영된다. 공연은 25일과 26일은 오후 7시 30분, 27일은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도선인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봄축제 ‘스페이스오딧세이’ 팡파르

‘미라클 사이언스’ 주제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시공연·강연 등 다채

국립광주과학관은 과학의 달, 가족의 달을 맞아 과학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2024 스페이스오딧세이 봄축제: 미라클 사이언스’를 개최한다. 스페이스오딧세이 봄축제는 매년 4~5월에 개최되는 국립광주과학관 대표 봄축제로, 올해는 오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신기한 과학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 만들기, 문화공연, 과학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신기한 과학 만들기 체험 ‘사이언스 클래스’ △마술같은 흥미로운 전시체험 ‘사이언스 팝’ △함께 참여하는 공연, 이벤트 ‘사이언스 펀&핀’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20여 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이언스 클래스’에서는 빛의 반사와 거울의 원리를 이용한 만화경·잠망경 만들기를 시작으로 로켓발사의 원리를 이해하는 나만의 우주로켓 만들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화산, 습곡·단층, 암석박편



을 직접 관찰하며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샌드크래프트 체험도 가능하다. ‘사이언스 팝’에서는 빛, 소리, 중력 등 과학원리 전시물 체험이 준비돼 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VR 포토존, 스케치월, 트리아트, 드로잉과 천문, 과학, 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이 과학이동버스에서 펼쳐진다. 공연·이벤트 ‘사이언스 펀&핀’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서나 장난감 등 중고물품 매매와 교환을 통해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이언스 플리마켓(5월 6일)이 진행된다. 매주 주말 인공지능 융합콘서트를 비롯해 버스킹과 클래식 연주도 펼쳐진다. 이 밖에도 온 가족이 공연을 즐기며 인

공지능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콘서트(4월 20일), 성인의 눈높이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성인 전용 프로그램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4월 26일)’ 등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축제기간 중 어린이날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버블쇼, 과학연구 등 다양한 특별 이벤트가 펼쳐지며, 축제기간 동안 야간에 과학관 주요 시설물에 조명을 점등해 밤에 더욱 아름다운 과학관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김현승 국립광주과학관 선임연구원은 “따뜻한 봄날 국립광주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행사를 통해 마치 마술과도 같은 신기한 과학원리를 온몸으로 직접 느껴 볼 수 있도록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며 “축제기간 온 가족이 과학소풍을 와서 과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 스페이스오딧세이 봄축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야외서 재즈 들으며 봄날 감동 만끽”

내달 4일 ‘빅도어콘서트’ 개최 광주 뮤지션 ‘G.J.Unity’ 등 출연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5월, ‘ACC 빅도어콘서트’와 함께 새로운 감동의 순간을 느껴 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5월 4일 오후 6시 ACC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2024 ACC 빅도어콘서트’를 개최한다. ‘ACC 빅도어콘서트’는 국립아시아문

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빅도어를 열고 야외에서 즐기는 뮤지션콘서트다. 이번 콘서트는 광주 출신 뮤지션 위주로 구성된 ‘G.J.Unity(Groove Jazz Unity)’의 무대로 막을 연다. 에너지 넘치는 리듬의 재즈곡을 연주하는 ‘G.J.Unity’는 현대적으로 편곡된 50년대 재즈의 하드 밥 스타일의 곡들을 연주하며 아름다운 선율과 화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이 시대 문제적인 재즈 연주자라

불리는 ‘김오키 새턴발라드’가 연주를 펼치고, 실험적 사운드로 탄탄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재즈 대표주자 ‘윤석철트리오’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의 합동무대가 마련된다. 빅도어콘서트 입장권은 2만원이며, 오는 3일까지 ACCF 누리집(https://www.accf.or.kr)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ACC 빅도어콘서트 당일인 5월 4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판매가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Logo for '全南日報 @jnibo' with social media handles and a QR code.